


공동체 소식



연중 제8주일

주님,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가 자유로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 구역장, 반장 모임

- 일시 : 오늘(2/26) 교중미사 후.
- 장소 : 나자렛 관

■ 반모임 안내

- 내용 : 반모임은 반장님의 주관 아래 모임 날짜와 회수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

- 미사: 3/1(수) 저녁 7:30
- 내용 : ‘재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재의 예식’에 참여하면서, ‘사람은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창세 3,19)는 가르침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교회는 이날 단식과 금욕을 지킵니다.

■ 평일미사 및 신심미사 안내

-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예수성심, 3/3(금) 오전10:00, 오전9:30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
- 성모신심, 3/4(토) 오전10:00. 미사 중에 묵주기도.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시간 : 매 사순주일 교중미사 40분 전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공동으로 바칩니다.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 s Call to Share’ 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66	217	165	4

■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문예나 요안나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차 주	정예진 한나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정수한 베드로	김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차 주	최은미 아네스	김화년 요안나	김명은 안젤라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수희, 김수연, 최선운
차 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 헌금 봉사자

금 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 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2/19일	57명	188달러	900달러
김진미, 김태선, 홍순익, 김호원, 김대성 (총 5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8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굽어살피시며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쌓여 가는 노고와 걱정 가운데서도 탐욕과 이기심에 빠지지 말고,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를 깊이 신뢰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읍시다.

그림 묵상 걱정하지 마라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뜰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마태 6,30-31)

하늘의 새마져 굶지 않게 돌보아 주시는 분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물질적인 것도 주님께서 마련해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9,14-15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 내 영혼아, 하느님을 고요히 기다려라.

○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구원이 오리니, 내 영혼 그분을 고요히 기다리네.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

○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희망이 오리니, 내 영혼아, 그분을 고요히 기다려라.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체.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

○ 내 구원, 내 영광 하느님께 있고, 내 든든한 바위, 내 피신처 하느님 안에 있네.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4,1-5

<주님께서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24-34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쉐 마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는 삶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바빌론에 유배를 끌려가면서 주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원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암울한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이사야 예언자는 여인들이 제 몸에서 난 아기를 잊는 일이 벌어질지언정 주님께서서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고 위로합니다(1독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잊어버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난 뒤 노래하는 화답송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내 영혼아, 하느님을 고요히 기다려라.”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님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이시니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라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영광, 구원이 하느님께 있고, 그분만이 나의 피신처이니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충실하자는 노래입니다.

오늘 봉독하는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도 우리에게 주님께 성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에 어둠 속에 있다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주님께 의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어둠 속 숨겨진 모든 것을 밝혀주시고, 마음 속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 맡기라고 권고합니다. 내일에 관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해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알아서 마련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니 오늘 전례에서 봉독한 독서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주님께 대한 철저한 의탁을 가르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좌절하여 하느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하곤 합니다. 또한 다가올 미래에 불안해하며 미래에 대해 좀 더 확실히 알려준다고 여기는 다른 무엇인가에 기대고 의지하곤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하느님께 더욱 굳건히 매달리라고 권고합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니 현실에 좌절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느님을 떠나 우상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분의 나라와 의로움을 찾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도외시하거나 미래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충분히 느낄 필요가 있고,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현실에 발을 딛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는지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에 빠져 절망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 같이 추구해 나가야 할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제대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에 충실하며 매일같이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고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현실에 좌절하며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여 하느님 외에 다른 우상을 찾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느님만이 나의 주님임을 받아들이며 그분께 더욱 충실히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바위, 성채, 구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 엄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교리산책

파스카에 담긴 뜻

파스카(Pascha)란 ‘통과하다’ 또는 ‘거르고 넘어가다’는 뜻의 히브리어 ‘페사흐’에서 유래된 말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로 해방되는 출애굽 사건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기원전 1230년경,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잡아두려는 파라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모세는 열 가지 재앙을 기적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주님께서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물론 가축들 까지 모든 만물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피가 발린 집은 건너뛰고 나머지 집은 모두 재앙을 당했습니다.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문은 거르고 지나가시고”(탈출 12,23)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켰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다이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하느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그 결과 자유를 얻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 행위에 감명받은 그들은 이 특별한 축제를 통해 그 사건을 기념하고 대대로 자손에게 그 의미를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생명을 걸고서라도 파스카 축제를 지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역시 이 파스카의 축제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마태 26,18)

예수님께서서는 이 만찬을 통해 당신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수난의 길로 들어서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파스카의 신비입니다.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장



복음묵상

꽃

세상 어떤 인간보다 아름다운 꽃

웃도
신도
장신구도
없지만

그에게는
순수함이
충실함이
순명함이
있기에

아름답고
고결하답니다.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마태 6,29)

- 임의준 신부